

연중 제 27 주일(군인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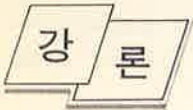
제 1 독서 : 장세 2, 18-24

제 2 독서 : 히브 2, 9-11

복 음 : 마르 10, 2-16

순정이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
(마르 10, 15)



군종단상



주목성 신부 / 군종 노도성당

살아가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고통의 빛깔이 다양하지만 가장 깊고 진하게 채색되는 고통은 '외로움'이라 생각한다. 세상 사람 다 건강한데 자기 혼자만 환자인 듯한 외로움, 모두들 행복하게 사는 듯 보이는데 자신만 불행하게 느껴지는 고독감,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정의에 투신하려 해도 동지가 아무도 없을 때의 소외의식,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의 허무함 등, 오로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슴 깊이 젖어드는 외로움은 주체할 수 없는 서글픔으로 남는다.

강원도 양구군, 바로 여기 외롭고 척박한 땅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런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간다. 하늘 삼천평에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는 이곳에서 국토방위의 의무를 위해 국가로부터 불리움을 받았다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소명 의식 하나로 외로움을 삭이며 사는 것이다. '의당 군대생활이 그런 거지 뭐'라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곳에 지금 이렇게 몸 담고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의당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홀로 떨어져 있다는 소외감과 함께 그리운 사람들로 부터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의 의지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하루하루를 버겁게 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인간적인 정에 굽주리고, 사랑에 애타고, 누군가 자기의 이름 석자를 불러 주기를 희망한다. 살아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이곳에 이들과 함께 생활한다. 자기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고, 자기들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자기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군생활을 전환점으로 새로운 인생,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과 삶을 나눈다. '우리와 함께했던 그 사람이 천주교 신부였어'라는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고 간직해도 그것은 하느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고 은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부님, 아직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답답한 말로 진지하게(?) 묻고 염려해 주는 비신자 사병이 대부분이지만, "신부님, 교무금은 왜 내지요?"라고 영똥한 질문을 해대는 몇 안 되는 장교신자들과 가족이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서로의 존재이유를 발견하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 모습을 발견하는 까닭이다. 훈련장에서, 내무반에서 신부의 모습이 보이면 춘향이 이도령 반기듯 뛰어나오는 그들의 사랑스런 모습 안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때문이다.

자기와 함께 먹고 자면서도 당신의 본모습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답답함과 고독감을 군종사목을 통해 묵상하며, 끝내 '당신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고 고백하던 베드로의 고백에서 체험했던 예수님의 벅찬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도 군화끈을 질끈 맨다. 언젠가 이들도 군종신부가 것처럼 살았던 것은 바로 하느님 때문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하나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보일(즈가리아)

붉게 물들어 가는 나뭇잎에서 가을을 본다. 귀뚜라미의 가냘픈 소리와 바시락거리는 낙엽 소리에서 가을을 듣는다.

하늘도 저만큼 멀어졌다.

별자리도 바뀌고 열어제겼던 창문도 닫았다.

아침 저녁 기온이 제법 쌀쌀해졌으니 분명 가을이다.

52년만의 더위라 했던가.

39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가뭄으로 온 국민들의 애를 태우며 기세를 부리던 여름도 밤송이 터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저만큼 물러나고 성큼 가을이 다가오니 벌써 10월로 접어든 것이다.

계절은 보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표현 또한 다르다.

시인들도 가을을 가리켜 “안개와 감미로운 과실이 무르익는 계절”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1년 중 가장 슬픈 계절”이라고 말하는 등 느낌이 제각각이다.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 동안 가꿔 수확하는 기쁨을 노래한다면 감미로운 것이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한 해가 저무는 것을 아쉬워 한다면 슬픈 계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부쩍 신문을 펴들기가 두렵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켜길 주저하는 것은 웬일일까.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비롯한 갖가지 부조리와 사람이기를 포기한 엽기적 살인사건 등 어두운 얘기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곧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세상이 뒤숭숭하고 불안한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나라 명승 조주(趙州)에게 어느 선승(禪僧)이 물었다.

“무궁화 꽃잎에 이슬이 맺고 오동나무 잎에 가을 바람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인생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조주가 대답한다.

“나비가 오지 않아도 꽃은 피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버드나무 씨는 난다네”.

자연의 섭리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그 길이 열려 있다.

특히 이 달은 로사리오를 바치며 거룩하게 지내는 달인 것이다.

또한 전교의 달이기도 하다.

로사리오란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로 목주 또는 목주의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목주기도는 구슬이나 나무알을 한 마디에 열 개씩 다섯마디로 엮은 십자가가 달린 목주를 이용,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이다.

로사리오의 기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연원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심신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교황 레오 13세는 10월을 로사리오 성월로 정하고 성모 호칭기도에 ‘지극히 거룩한 로사리오 모후’라는 호칭을 추가하여 로사리오에 의한 신심을 장려했다.

해마다 10월 끝에서 두 번째 주일로 정해진 ‘전교주일’은 전교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선교지역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 특별헌금과 기도회를 통해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한국 교회는 ‘전교주일’이 들어 있는 10월을 ‘전교의 달’로 정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교는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부과된 막중한 과업이다. 모든 신자들은 기도로서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감수하며 전교활동에 참여, 무상으로 받은 하느님의 선물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2고린 5, 17).

숲정이 산책



군복무를 주님과 함께



이일구(미카엘) 중위/육군 5397-401대대

어느덧 내가 군에 입대한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대학 다닐 때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성당에서 보냈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주일학교에 나가기 전에 내 신앙생활이란 거의 비신자와 같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내 부족한 삶을 채울 수 있었고 나이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군에 입대할 때, 정들었던 많은 것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군에 들어온 뒤,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밖에 있었다라면 편한 시간에 미사에 참석하고 주일미사에 한번 빠지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터이다. 하지만 군대생활은 나 혼자만의 생활이 아닌 단체생활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교육생 시절에는 몇 주간의 기초 교육과정을 거친 뒤에야 주말에 성당을 갈 수 있었고 지금 내가 근무하는 자대에 와서는 부대 분위기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한 달 동안의 영내 대기기간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밖에 있는 성당에 다닐 수 있었다.

군대에서는 기독교·천주교·불교라는 3가지 종교를 인정해 주고 있다. 주말에 병사들은 '종교행사'라는 시간에 자기가 믿는 종교에 나갈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다니고 있는 성당은 시골의 작은 성당이다. 물론 군중교구 산하의 화려 성당이 있으나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대 근처의 성당에 나가고 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부대 안에 교회가 들어와 있어 별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신부님의 부재, 빈약한 재정 따위로 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작은 부대급에는 성당이 없다. 나는 다행히도 민간인 성당에 다니고 있지만 그 성당 역시 주민들이 사목활동에 모든 신경을 써야 되므로 우리 병사들 사목에는 어쩔 수 없이 관심밖이 되고 만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듯 우리 부대 안에 기독교회 신자수는 대단히 많은 반면 천주교 신자수는 겨우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다. 사회에 있을 때 천주교 신자였던 병사들도 이러한 여건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냉담자가 되어 가는 걸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 가운데서 한번도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병사들을 볼 때면 나 자신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걸 느낀다. 더군다나 이들의 군생활하는 태도를 보면 다른 병사들에 비해 모범되고 성실한 모습이 철철 넘쳐나고 있음을 본다.

그렇기에 나는 제언하고자 한다. 군중교구에도 많은 신부님들이 오셔서 사회와 격리된 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을 근심이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따뜻한 말로 그들을 편안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섰으면 한다. 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병사들과 내가 훨씬 나은 생활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할 데가 많다. 나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과 함께 장비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내게 맡겨진 병사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임무이자 신경 쓰는 첫째이다. 물론 나 자신도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천주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늘고 있으며 병사들의 건강과 부대의 무사고를 위해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다. 더불어 비록 몸은 잇달은 훈련과 교육으로 지쳐 있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웃음짓는 병사들을 볼 때 늘 천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당 교육들 중에 군에 있는 형제가 있다면 군인주일을 맞이하여 작은 기도라도 해 봄이 어떨지. 아마 그 기도는 나를 비롯한 모든 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전교주일 담화문(요약)

가정은 선교 성소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마태 12,50).

교형 자매 여러분!

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강생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교 사업의 준비를 위한 장소로 인간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인류 구원 사업의 연장으로 교회라는 새로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관점에서 상호 유대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선교활동의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골고루 있다고 한다면, 특별성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더욱더 선교 정신의 부추김을 받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2. 혼인 서약을 신성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복음화를 고무시키는 꺼지지 않는 불길입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성심과 일치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교회의 선교 사명 77항) 주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헌신’과 때로는 ‘순교’라는 지고의 표징을 통해 열성적이고도 참을성 있게 만백성에게 기쁜소식을 선포하도록 고무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선교사의 유일한 목표는, 나자렛 성가정의 연장이 되고 하느님 나라의 성장과 지고한 인간 가치의 증진을 위한 “누룩”이 되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혼인성사로써 부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사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가정은 바로 가정 안에서 교회의 신비를 반영한다(교회헌장 11항 참조)는 개념-교회 교부들의 전통에서는 소중한 개념-을 강하게 재천명했



습니다. 신심 깊은 가정은 그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 하느님께서 언제나 머무르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 활성화와 협력에 이바지하면서 전교회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 내에서와 가정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보편 교회 안에서의 복음화 활동을 통해 교회생활과 선교에 동참하는 삼중의 복음화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 혼인성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와 부모를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동시에 참된 의미에서 사랑과 생명의 선교사로 만들고 있습니다”(가정 공동체 54항).

4. 가정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희생을 통한 복음 전파의 장입니다. 교회 내 다른 모든 기도들처럼 가정의 기도도 선교의 차원을 포함해야 하며 그렇게 하여 복음화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희생은 기도와 불가분의 보완 관계에 있으며, 아낌 없는 희생일수록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투신하십시오

5. 이 세계의 수많은 견해와 사건들, 문제와 갈등들, 성공과 실패들의 대중 매체의 설득력으로 인해 가정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인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조립식 건축
한국건설
조립식건물, 일반공사
경량칸막이 콘테이너
김해선(레미지오)
☎(0652) 75-0161
FAX (0652) 71-6301
휴대폰 011-659-8355

성신당 한약방
이흥재(요셉)
우아동 기린중학교 정문 옆
☎ 245-9787~8

장애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마일생수
최신시설로 지하 157m에서 채취하고 있는
천연 알카리수 ♣생수로 인한 이익금은 장애인 복지 및 성전건립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작은 예수회
☎ (0652) 225-4678
호출기 015-682-4678

토양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 자녀들과 함께 매스컴의 뉴스와 정보, 견해들을 평가하며, 그러한 매체들이 가정에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 바로 부모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은 인류 가족의 일치와 발전을 증진시켜야 할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참 기능에 부합하게 됩니다 (일치와 발전 1항; 새로운 시대 6-11항 참조). 복음의 사도들은 각자가 이러한 목표를 나누어 가져야 하며 사랑의 문화의 견지에서 신앙의 빛으로 이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중 매체라고 하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분야에서 하는 활동은 막대한 인적 경제적 투자가 요청됩니다. 저는 세계로 퍼져 나가는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인류의 구세주이자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의 온유하고 확고한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관대함의 지고한 표현은 완전한 자기 헌신입니다. 전교주일에 즈음하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두려워 말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치십시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둬 되풀이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루가 10, 2).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선교 봉사에 대한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결코 신앙과 각오가 부족하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기 빕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소는 가정 기도, 영성과 열성으로 풍부한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의 일상적인 모범, 본당활동의 참여, 단체활동과 자원 봉사 등을 통하여 준비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생활 양식과 가정 교육을 통해 선교 정신을 배양하는 가정은 성소의 씨앗이 움트는 좋은 토양이며, 동시에 가족들 간에 사랑의 결속을 다지고 그리스도교적 덕행을 닦는 곳입니다.

7.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그 정배인 성 요셉에게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확고한 신뢰로써 전구를 청하며, 올 한 해 동안 모든 가정 공동체에서 선교 정신이 함양되어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자녀들의 가족"(사목 헌장 92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가정은
기도와 희생을 통해
복음 전파의 장이 되어야 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선교성소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요심이 (1101) 김병오

지존파와 택시기사가
사람을 납치 살인하고...

무장한 장교가 탈영하니
불안해서 못살겠소
대책을...

자기생명은 각자 지키시오
나도 불안해서 경호를 철폐
하고 있소!

내 책상 밑을
보시오!

교구청 교육국 직원모집
1. 지원자격: 영세한지 5년이상된 사람
2. 학력: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3. 연령: 제한없음 4. 제출서류: 지원서, 본당신부 추천서, 세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1통 5. 서류접수및 마감: 1994. 10. 8(토) 오전 12시까지
6. 서류접수처: 전주교구청 사무처

**호성동 성당
신축기금 마련 바자회**
· 때: 10월13일(목)~16일(일)
· 장소: 호성동 성당
(전라여중 뒤, 승마장 앞)
☎ 241-1140

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초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각 본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11월20일마감, 12월배달)
· 문의: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기아 자동차
남전주 지점**
새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 상 역(요셉)
☎(0652)87-6301~6
호출기: 015-685-0312

**마리아의 종 수녀회
(성소자 피정)**
· 일시: 10월8일~9일 오후 7시30분
· 장소: 마리아의 종 수녀원
(충북 청주시 율령동192)
· 준비: 신약성서, 필기도구
· 회비: 5,000원
· 문의: 청주본원(0431)211-8261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 일시: 10월29일~30일 오후 4시
· 장소: 부산 수녀원 피정의 집
· 대상: 수도생활과 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 준비물: 미사도구, 필기도구
· 문의: (051)514-1773

- 한국진출 30주년 기념 -
동정성모회 성소자피정
· 일시: 10월22~23일 오후 5시
· 장소: 서울 메리워드 교육관
· 회비: 10,000원
· 문의: (02) 685-7222
(042) 254-6530

가정의 해-생명수호와 가정성화를 위해 9일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정사목위원회 담화문
모든 가정이 사랑과 생명의 성역이 되게 하소서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1994년 '세계 가정의 해'에 모든 가정이 사랑과 생명의 보급자리가 되도록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두손 모아 기도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9일 로마에서는 세계 각국의 대표 가정들이 교황님을 모시고 세계가정대회를 갖습니다. 같은 날 우리 나라에서도 교황님과 일치하여 많은 가정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가정대회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생명 경시 풍조와 가정 파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 때에, 무엇보다도 모든 가정이 생명을 수호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생명과 가정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우리 사회가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님께서 '세계 가정의 해'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신앙인들에게 가정 기도를 적극 권장하십니다. 기도는 영적 힘입니다. 가정 기도야말로 사랑과 생명의 문화 창조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늘 깨어 기

도하여야 하겠지만 10월1일부터 9일까지 특별한 지향으로 9일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바치셨던 '가정을 위한 기도'를 가정에서, 본당에서 열심히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생활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 기도 기간 : 10월1일-9일(9일기도)
- 기도 내용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정을 위한 기도'(매일미사 10월, 166면)
- 기도 지향 : 1) 형법 개정안 제135조(낙태 허용 범위)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하여
 2) 낙태죄 보수와 인간 생명 수호를 위하여
 3) 모든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1994. 9. 8.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 일시 : 10월3일 오전 11시
 • 장소 : 동창회관(본교 내)

변원구 한의원

변원구(에로니모)
 허정자(수산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옆
 ☎ 252-1783
 253-6355~6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 비뇨기과
 박승근(다미아노)
 김종화(실비아)
 효자삼거리 전북은행 앞
 ☎ 225-3858

신속 배달
광진페인트

신축, 실내장식, 집수리 전문
 김태정
 원점순(젼마)
 전주시 서서학동 152-3번지
 ☎ 88-7672, 88-1285

교 구 소 식

❖ **축! 건진**
· 때 : 10월9일(일) 오전10시30분
· 곳 : 금마 성당

❖ **'94교구사제 연례피정**
· 때 : 10월3일~7일
· 곳 : 안양 아론의 집

❖ **가톨릭 문우회 문학의 밤**
· 때 : 10월31일(월) 오후7시
· 곳 : 가톨릭센터
· 초청강사 : 이해인 수녀

❖ **천호 피정 안내**
· 때 : 10월8일~9일
· 주제 : 그리스도인의 영성
· 강사 : 김준수 신부
· 문의 : 73-6600

❖ **초등부 어린이양 잔치**
· 때 : 10월9일(일)
· 곳 : 윤호관

❖ **가톨릭 언론인회 방송인회
공소방문**
· 때 : 10월9일(일) 오전9시
· 곳 : 진안 오암리 공소
· 출발지 : 가톨릭센터

❖ **사랑의 다리 윌레미사**
· 때 : 10월10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휘폴라레 모임**
· 때 : 10월2일(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대상 : 국교에서 일반

❖ **푸른 군대**
· 때 : 10월6일(목) 오전10시
· 곳 : 덕진 성당

❖ **축! 영명**
· 4일(아씨의 성프란치스코)
김기로 신부님

성소모임

❖ **살레시오 수도회**
· 때 : 10월9일(일) 오후1시
· 곳 : 인보성체수녀원
· 문의 : (062) 512-0332

❖ **살트르 성바로 수녀회**
· 때 : 10월9일(일) 오후2시
· 곳 : 창인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3)842-4132

❖ **사랑의 씨튼 수녀회 피정**
· 때 : 10월8일~9일
· 곳 : 광주 본원
· 문의 : (062)571-3004

■ 권해드리는 책 ■

· **소금인형**
피터 라이브스 지음
3,800원/성바로출판사
이 책에 소개한 32가지 이야기는 모두 건조한 현대인들에게 교양과 지혜는 물론 재미를 더해 줄 것이다.

· **종횡이 만나는 십자가**
정광영 지음
5,000원/가톨릭 출판사
필자가 1972년 경북 교도소 사목을 통해서 사형수의 참화와 순교, 1992년 새해 첫날부터 매주 샌프란치스코 한미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교와 인생'이란 주제로 샌프란치스코 한 국일보에 기고한 원고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쓰레기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나중에 처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도 크게 방지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분리 요령을 소개한다.

- **젓은 쓰레기**
조리할 때 나오는 젓은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많으나 물기를 잘 빼서 버리지 않으면 부피가 늘어날 뿐 아니라 소각효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 **병**

맥주나 콜라병 같은 것을 씻어서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에서 환수하지만 화장품병이나 판유리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소재가 섞여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도록 한다. 버릴 때는 신문지나 종이 등에 싸서 길에 '위험'이라고 써서 버리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캔**
악취나 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내용물을 비우고 속을 물로 대강 헹군 뒤 버려야 한다. 발로 밟거나 손으로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이는 것이 좋다.

성바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슬라이드, CD 등
중앙성당 옆

☎ (0652)252-3398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현대피부미용전문학원

미용과 · 연구반
피부관리 · 메이크업
분장(T.V, 연극)
유학, 해외연수

김금순(테레사)

☎ 86-2211, 254-3003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 75-055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람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준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 ◎ 연중 제27주일
- ◎ 군인주일: 2차헌금 있음
- 1.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만 7시로, 다른미사는 종전과 같음
- 2. 사제 피정: 3일~7일,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바람
* 피정기간 동안 말씀의 전례 있음
- 3. 본당의 날 성지순례: 9일 전 8시, 전주고등학교 집결
준비물-미사도구, 복주, 도시락, 시간 업무바람
* 본당에서의 미사는 토요일-복전미사, 일요일-새벽미사만
있음. 성지순례를 가지지 않으시는 분은 필히 참례바람
- 4. 6월 영세자 첫 고백: 오늘 후 2시30분
- 5. 노송형제회 1월피정: 3일 전 9시~후 5시30분
회비-4,000원
- 6. 사목회 상임: 7일 후 8시 사랑방
- 7. 감사헌금: 중노8만 최길순(그라씨어)-사심만원, 감사합니다.
- 8. 모임: ①울뜨레아(2일 정엄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4일 전 10시30분)
③만회장 모임(6일 전 10시30분)
- 9. 금주 청소: 중노24,27만
차주 청소: 인후1,3만
- 지난주 봉헌금: 1,019,430원 □ 교무금: 1,243,000원

- ◎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 2차헌금 있음)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전교의 달)
- 1. 성당, 수녀원 축복식: 10월2일
주례-이병호(빈첸시오) 주교님
행사-1부: 미사
2부: 축복식
3부: 점심 및 흥겨운 한 마당
- 2. 꾸리아: 10월2일(오늘) 오후 3시
- 3. 자모회: 10월5일(수) 오전 10시30분
- 4. 사목회: 10월11일(화) 오후 8시30분
- 5. 영세식: 10월8일(토) 저녁미사중
예비자 집중교리-10월4일(화)~10월7일(금)
매일 저녁미사 후
- 6. 교구 사제 연례피정: 10월3일(월)~10월7일(금)
* 신부님 피정기간 동안은 미사 없고 말씀의 전례로 함
- 지난주 봉헌금: 1,008,950원 □ 교무금: 1,278,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원재
F A X 82-6232 유희진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전교의 달입니다.
- 1. 오늘은 군인주일(2차헌금 있음)
- 2. 예비자 교리 안내: 매 주일 오전 9시-수녀님만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보좌신부님만
- 3. 예비자 입교식: 10월9일 공식미사에
- 4. 미사시간 변경: 10월3일부터
새벽미사 6시30분, 저녁미사 7시
- 5. 교구 사제 연례피정: 10월3일~7일(말씀의 전례 있음)
- 6. 성지순례: 장소-미리내 성지, 일시-11월3일
회비-이혼(일반원) 어린이(칠천원) 신청-사무실
- 7. 어린이양친치: 10월9일 오전 9시30분 유효환
- 8. 사목회 단합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9. 태권회: 오늘 공식미사 후
- 10. 구역분과: 4일 오전 10시, 11. 울뜨레아: 4일 저녁미사 후
- 12. 자모회: 6일 오전 10시, 13. 여성분과회: 8일 오전 10시
- 14. 가정 방문: 10월 11일 부터
- 15. 성당 청소: 10월8일(토) 구세주의 모친Pr, 일치의 모후Pr
- 16.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강주호, 봉헌-안철만
- 17. 차주 전례: 해설-조옥래, 독서-이갑규, 봉헌-장현상
- * 감사합니다. 2차헌금: 274,420원
프완나 난민 돕기 2차헌금: 664,140원
- 지난주 봉헌금: 715,860원 □ 교무금: 1,196,500원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전교의 달)
- 1. 금주: ①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주일
②청소년농구, 단체 졸업기대회(전 9시30분 유효환)
③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④제송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⑤요새회(후 6시)
- 2. 사제 피정: 3일~7일(기간중 말씀의 전례)
-사제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성체장복, 병자 봉성제는 차주로 연기합니다.
- 3. 베에다회: 5일(수) 오전 11시
- 4. 성모성심회: 6일(목) 오후 3시
- 5. 차주: ①평신도 강론(선교분과)
②교구 어린이양친치(전 9시30분, 유효환)
③자모회(전 10시)
④예비자 교리반 개강식(공식미사중)
⑤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⑥사목회(후 6시)
- 6. 본당 신부님 구역 사목방문: 10월11일부터 시작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래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김삼근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 1. 오늘은 군인주일: 2차헌금
- 2.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의 날
- 3. 전주교구 사제 연례피정: 3일(월)~7일(금)까지, 많은 기도바
랍니다.
- 4. 윤 올리바 수녀님 연례피정: 8일(토)~15일(토)까지, 많은 기
도바랍니다.
- 5. 모임: ①꾸리아, 요새회-공식미사 후
②안나회, 자모회-다음주일
- 6. 인간 생명 수호와 가정성화를 위한 9월기도: 9일(일)까지
- 7. 초등부 어린이양친치: 9일(일) 유효환, 성가 경연대회
- 8. 초! 혼인: 신랑-강준호(마오로) 신부-안경미, 오늘 오후 1
시30분 막전성당
- 9. 금주 청소: 구세주의 모친Pr
- 10. 차주 청소: 신비로운 장미Pr
- 11.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양주태 ②송정자
봉헌-박순귀 씨 부부
□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최경림 ②김금자
봉헌-성대직 씨 부부
- 추석미사 예불: 1,515,000원.
- 조총동 돕기 2차헌금: 194,000원
- 본당발전을 위한 헌금: 151,480원
- 지난주 교무금: 336,850원 □ 교무금: 229,000원

- ◎ 군인주일: 2차헌금
- ◎ 인간생명 수호와 가정성화를 위한 9월기도: 1일~9일
가정 성시간: 6일 가족끼리 유인물 이용 기도바랍니다.
- 1. 성시간 강제강복: 4일 저녁 7시30분
- 2. 구역 반회장 연수회: 4일 전 10시30분
- 3. 교구 사제 피정: 3일~7일 본당신부님을 위해 기도바람
신부님 피정기간 말씀의 전례 안내: 4일-사목회장, 5일-11시
부녀회 전례부, 7시30분-전례부장, 6일-선교부장
- 4. 어린이양 큰잔치: 9일 유효환, 자모회 수고바랍니다.
- 5. 여성 47차 꾸르실로 강습 수료: 임매자, 정영희 축하합니다.
- 6. 대세자 명단 보고: 이 달까지, 대세 문서양식 사무실에 비치
- 7. 주공 노인대학 무료급식: 6일 점심 부녀회 수고바랍니다.
- 8. 전주교구 ME 48차 나눔모임: 9일 12시 평화동 성당
강사부부-박도식, 이영자
- 9. 회의: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부녀회-5일 낮 11시 말씀의 전례 후
성체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성가대-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 10월은 전교의 달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신자의 의무인 1인1명 전교에 노력을 기
울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90,960원 □ 교무금: 1,273,000원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전동 교육관, 요한복음 강의